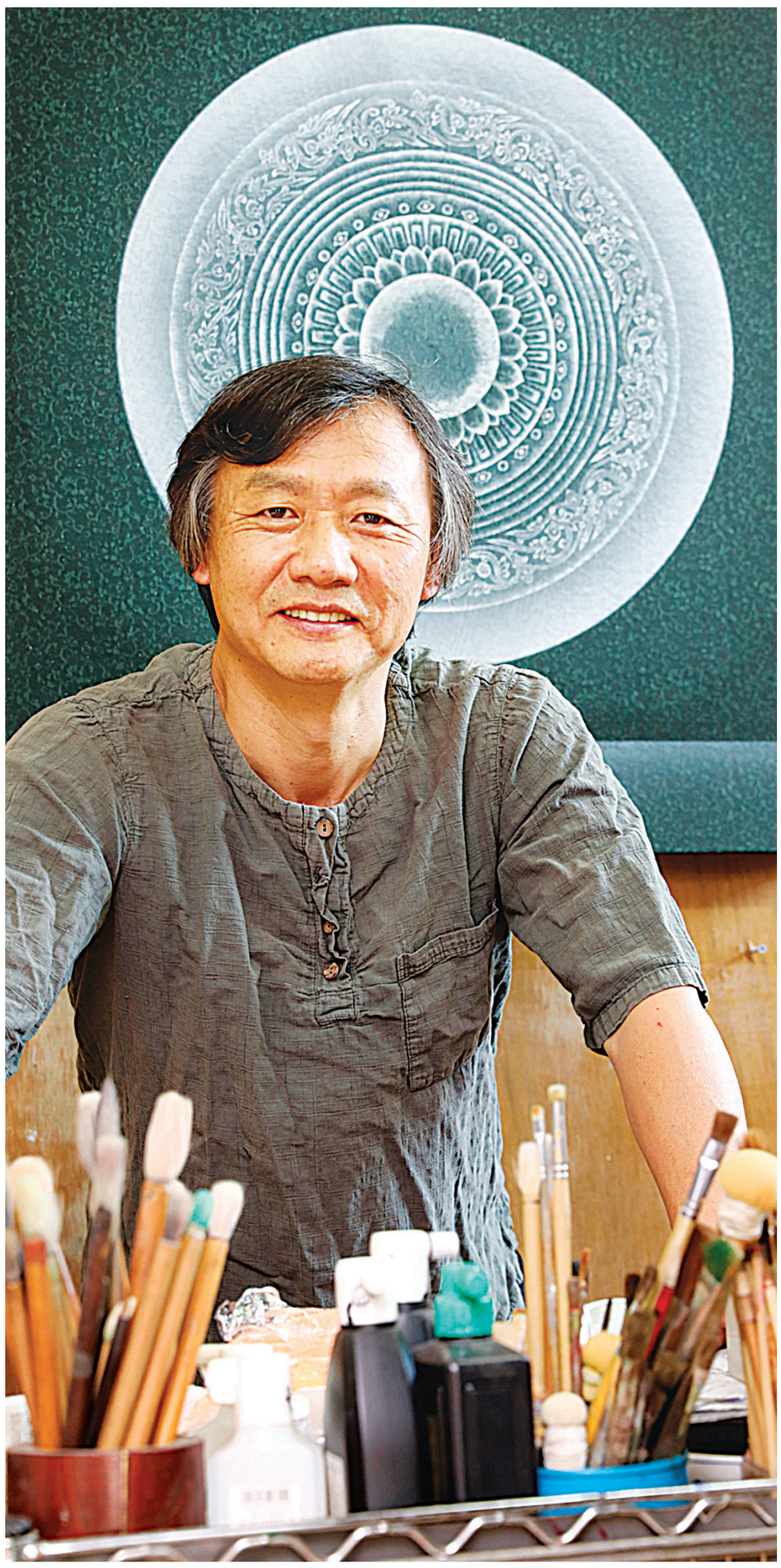
고요와 평온으로 초대하는 門, 滿月

Interview 박경귀 한국불교미술협회 회장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보름달을 바라보면 나 자신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만월(滿月)의 형상에서 그림을 시작하는 화가 박경귀, 그는 하루하루 차올라 마침내 온전한 원을 이루는 달의 모습에서 화가로서의 미학과 인간으로서 추구해야 할 성찰의 길을 찾고 있다. 오랜 동안 전통불화와 오늘의 불화를 그리며 한국불교미술 저변을 넓혀온 박경귀 화가가 또 한 번 넓어진 미학과 깊어진 마음을 그림으로 선보인다. 8월 18일부터 24일까지 서울 동덕아트갤러리 B관에서 개인전 '觀心의 表象'을 연다. 올해 봄부터 그리기 시작한 만월 그림 10점과 보리수 잎에 그린 표상 20여 점을 함께 선보인다.

"작은 초승달에서 시작하여 커다란 보름달로 변하는 달의 생태가 수행자가 정진하여 마침내 정각을 이뤄내는 모습과 같아 보였어요. 작품 속에 만월이 등장하는 이유도 그것을 그리거나 바라보면 수행자의 정진하는 모습이 중첩되면서 나를 성찰할 수 있기 때문이죠. 저에게 '만월'은 '나'를 바라보기 위한 표상(表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교의 수행법 중에는 관불삼매(觀佛三昧)가 있다. 부처님의 공덕과 상호를 생각하고, 관찰하고, 수행하는 참선법이다. 수행자들은 오래 전부터 불상을 깊이 바라보며 관불삼매의 방편으로 삼아왔다. 삼매에 들기 위한 표상으로 불상을 선택한 것이다. 고려시대 불화인 '관경 16 극락 변상도'에는 극락에 도달하기 위한 석양, 물, 땅, 나무, 해 등 16가지의 표상을 그려서 깊게 관하게 하고 있다. 〈청정도론〉에서는 '삼매'를 "하나의 대상에 마음을 집중하여 마음이 선해진 상태"라고 했다. 박 작가에게 만월은 자신을 바라보기 위한 표상이다.

"오늘날 인터넷의 발달로 24시간 새로운 정보와 마주하게 되면서 자신을 바라보는 시간은 극도로 적어졌습니다. 쏟아지는 새로운 정보를 쉴 새 없이 접하다보니 자신을 바라보는 시간을 갖기 어려워진 것입니다. 동시대인의 한 사람으로서 외부로만 향하는 대중의 시선을 잠시 멈추게 하고 마음을 살필 수 있는 그림을 그리고 싶었습니다. 만월 작업은 이러한 고민에서 시작됐습니다. 자신을 바라볼 기회가 많지 않은 오늘의 대중을 보면서 나를 비롯한 대중이 '관심(觀心)'에 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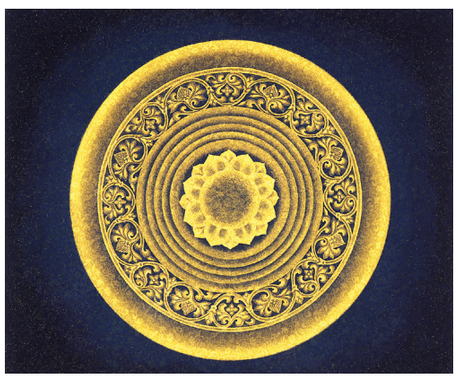
박 작가는 이번 작품에서 기존 불상의 광배(光背) 속 두광(頭光) 문양을 만월에 그려 넣었다. 특히 5세기 전후 인도와 동방의 각국 불상에 그려진 두광 문양을 옮겨 넣었다. 그 시대에 동방으로 뻗어나간 빛의 여정을 좇았다. 작품명을 '갠지즈강 위의 만월', '다퉁을 밝힌 만월' 등 불상이 조성된 곳의 지명을 붙인 이유도 빛이 머물렀던 곳의 삶과 그 장소를 기억하기 위해서다.

당시의 불교미술은 인도를 비롯한 동방 곳곳에서 개성 있는 빛깔로 피어나고 있었다. 인도는 굽타 시대로 사르나트나 마투라 지역의 불교조각과 아잔타 석굴의 벽화 등 인도적 불교미술이 만개했다. 한편, 인도의 붓다고사 스님이 〈청정도론〉을 집필하여 삼장이 정립되고 삼매 수행이 활발히 일어났다. 동방에서는 다퉁, 평양, 사비, 서라벌, 아스카 등 도시인의 염원이 담긴 불교미술이 새롭게 꽃피고 있었다.

"두광은 부처님의 머리에서 발산하는 빛으로 깨달은 자에게서 나타나는 '아우라(Aura)'이자 세상을 밝혀주는 '광명'입니다. 즉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를 상징합니다. 만월에 두광 문양을 그린 이유는 수행자가 불상을 바라보며 부처님의 상호와 공덕을 생각하고 삼매에 빠지듯, 만월 속에 새겨진 부처님의 빛 문양을 바라보며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를 생각하고 자신을 바라보려는

박경귀 개인전 '觀心의 表象'
동덕아트갤러리 8월18~24일
만월 · 표상 등 30여 점 전시

만월에 부처님 頭光 문양 그려
"차오르는 달은 수행자와 닮아,
만월은 '나'를 찾기 위한 표상"



다퉁(大同)을 밝힌 만월, 2021, 문양 천 위에 분채, 80X80cm



동쪽으로 부는 바람, 2021, 모시 위에 혼합재료, 15X15cm

생각 때문입니다. 만월은 원형입니다. 각이 무한히 많아지면 원형이 됩니다. 즉, 원은 무한히 많은 각의 집합인 것이죠. 원은 무한히 많은 각의 집합이어서 조형적으로 가장 고차원적인 형태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각이 없으므로 조형상 가장 단순한 형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일즉다다즉일(一卽多多卽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박 작가에 따르면 원은 중심축에서 테두리까지의 거리가 균일해서 균형이 안정적이다. 따라서 이를 바라보면 고요하고 평온하게 느껴지는 시 · 지각적 속성이 있다. 만월에도 이러한 원의 속성이 내재하고 있어 이를 보고 있으면 마음이 고요하고 평온해진다는 것이다.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적멸(寂滅)' 혹은 '사마타(Samatha)'의 경지에 이르게 하는 형상이라고 할 수 있다.

박 작가의 '만월'은 외부로만 향하는 대중의 시선을 안으로 돌려 각자의 마음을 살필 수 있게 하는 하나의 표상으로서의 그림이다. 그는 그런 자신의 그림을 '이타회화(利他繪畫)'라고 소개했다. 감상자를 성찰하게 하는 이타적 그림이라는 측면에서 그렇게 정의했다. 전통적 불화도 이러한 측면에서 이타적 속성을 지닌 그림이며, 자신의 작업은 이러한 불화의 속성을 동시대인의 조형언어로 변환시킨 '동시대성(contemporaneity) 불화'라고 소개했다.

"관심(觀心)은 고요와 평온에서의 자기 마음챙김이며, 나의 만월(滿月)은 마음을 고요와 평온으로 초대하는 문입니다."

박경귀 화가는 13세 때인 1975년경 가업으로 불화를 그리기 시작했다. 1984년 스승인 조각가 오윤의 권유로 동국대학교에서 불교미술을 전공하면서 불교미술가로서의 길을 시작했다. 이상적이고 가치중심적인 성향이 종교화인 불화의 속성과 잘 맞았던 그는 청년 시절에 색상과 선에 심취했고 불교철학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내용적으로도 많은 모색을 더했다. 그가 말하는 '이타회화'는 그 모색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학창시절에 몰두했던 자신과 타인의 관계성에 대한 사유에서 태어난 박경귀의 미학이다.

불교미술을 공부하면서 더욱 불교적인 화가가 되기 시작한 박 작가는 1989년 대학 졸업 후 약 20년간 전통불화와 시대가 요구하는 불화를 함께 모색해왔다. 2016년에 그린 '중중무진법계연기(문양천 위에 분채, 300×500cm)', 2020년에 그린 '지혜의 놀이터(문양천 위레 분채, 230×430cm)' 등은 전통불화의 틀을 넘어선 것으로 실제 불사에서 실현한 현대적 불화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다.

박 작가는 2009년 비영리 갤러리 스페이스선+를 열어 많은 작가들에게 무료로 전시 기회를 제공했다. 다양한 동시대 작가들과 교류하고 그들의 작품을 접할 수 있었던 박 작가는 화가로서 많은 자극을 받았다. 2014년 개인전 '불이'에서 생명 있는 모든 것의 관계에 대해 사색했고, 2021년 개인전 '관심의 표상'을 준비하면서 마음을 깊이 관찰하게 하는 표상으로서의 회화를 모색했다.

현재 한국불교미술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박 작가는 한국불교미술의 오늘과 미래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국민대학교에서 미술학 박사과정을 진행하며 '이타회화'에 관해 더욱 고민하고 동시대 불화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전시문의 (02)732-6458.

[전국 최초 최고 불자명품 교육기관]
무명에서 빛을 찾아 함께 갑시다!
부산불교교육대학
개교 40년 맞이
하반기 신입생 大모집 유튜브 강좌 개강
| 입학식 / 개강 특강 | 2021년 9월 6일(월) 오후7시 |
– 신규탁 교수의 백암록 –

정 규 과 정
■ 기초교리학과 (6개월, 화 / 유튜브 강좌 병행)
기초 핵심교리를 알기쉽고 체계적으로 설명(학장 스님)
■ 불교엘리트 1기 (6개월, 목 / 유튜브 강좌 병행)
●금강경 (前 해인사 강주 보윤스님)

신규탁 교수의 유튜브 강의
■ 백암록 (3개월, 월 · 수 / 각 30분)
●선종의 최고 과목
■ 화엄경 (6개월, 화 · 금 / 각 60분)
●교종의 최고 과목

자격증 취득 과정
■ 불교문화학과 (6개월 / 김춘식 교수)
사찰문화재 중심 시청각 강의 및 현장답사
▶불교문화 포교사(수) (민간자격 등록 2018-000374)
▶불교문화 전문지도사(금) (민간자격 등록 2019-000629)

승려연수 인증교육
●2600년전 붓다의 깨달음을 현대의학으로 규명하는 흥미롭고 유익한 정보 제공
●10/18(월)~22(금) 5일간 13:30~16:30
●동국의대 해부학 교수 문일수(서울대학원 · 캐나다UNB박사)
●비대면 ZOOM 화상 교육 (조계종 승려 50명)

※ 각 학과별 매주 1회 오후7시~9시 강의

대한불교조계종 삼보문화회
부산불교교육대학 학장 평천 범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대로 749-1 신동아오피스텔 5층(서면 롯데백화점 맞은편) Tel. 051-711-0700

우주의 신비가 호흡에 있다 - 호흡의 비밀을 풀다
만트라 염불선치료 명상 과학 센타
제6차크라 젠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공개 강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오전 11시

4차 산업혁명과 AI 인공지능 시대에 미래의 대체의학인 젠에너지체(붓다의 의성신 · 금강신)를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수 행 : 고타마 싯다르타(석가모니)부처님의 호흡법을 발견, 전수함. (아나빠나사띠숫타)
■ 부처님말씀 (아나빠나사띠숫타) : 1. 들숨날숨에 대한 알아차림을 통한 삼매를 닦고 많이 공부지으면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2. 들숨날숨을 통한 알아차림에 대한 삼매를 닦으면 – 몸도 피로하지 않았고 눈도 피로하지 않았고 나의 마음도 번뇌로부터 해탈하였다.
3. 호흡의 전과정(길고, 짧고, 거칠고, 미세한)을 온몸으로 경험하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리라.
4. 맛지마니까야 : 평정한 마음과 분명한 알아차림과 육신의 행복을 느끼며 머무른다.
■ 특 징 : 제 6차크라(제3의 눈 · 뇌의핵심〈송과체〉· 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 (젠에너지체 – 행주좌와어묵동정)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호흡 선정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구전심수) / 면접 상담 후 결정 ■ 등록번호 : 138-50-00260
■ 문 의 : ☎ 010-5282-7292 (젠에너지 치료 예약 접수)

제6차크라 젠에너지 치료 명상가 처명선광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수료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재학중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전)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후원계좌 : 국민은행 (371101-04-120586 박성호)

과학적인 증거
(ㄱ) 호흡의 물리가 터지다 = 제6차크라 젠에너지체
(ㄴ) 제6차크라 열리기 전,후 비교사진은 페이스북에서 'Sung Ho Park' 처명선광 검색
(ㄷ) 구글에서 신희섭(기초과학연구원단장, (전)IBS 1호 연구단장, (전)KIST 뇌과학 연구소장) 구글이미지로 제6차크라가 열려있는 것을 확인 가능
*붓다의 호흡법 : 방법을 알고 최소 1일 10시간씩 3년이상 수련 필요

붓다의 호흡법 연구소(소장:처명)
유튜브에서 '처명선광' 검색
듣기만해도 치료가 되는 실전 명상